

# 전남도의 자기반성 “공무원 폐쇄적·현실 안주”

## 조직역량 실태 보고서

전남도 공무원들이 폐쇄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역량이 미흡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남도는 17일 조직 역량 실태 보고서에서 “조직역량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는 없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도 공직자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사업계획 보고서가 다른 지역의 보고서보다 내용이나 설득력이 부족해 (중앙정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결론”이라며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 사업 계획서 설득력 부족해 예산 확보 어려움

## 언어능력·국제감각 뒤져... 일 중심 조직문화 시급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부족하고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감각과 언어능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조직 역량이 부족한 요인으로 ▲ 폐쇄적·현실 안주 조직문화 ▲5급 승진 제도 폐지 ▲7·9급 공채 위주의 소극적 채용 제도 ▲형식적 교육훈련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 ▲시·군 우수인력의 도 전입 기피 ▲중앙 및 다른 기관과의 인

사교류 부족 등을 꼽았다.

도는 이에 따라 채용에서 퇴직까지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일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 전체 공무원 2144명의 나이·학력·입직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연령은 45.7세로 나타났다. 91.7%가 대졸 이상 학력이었으며 일반직 공무원 1830명 가운데에서는 석사학

## “비리·잡음 무기계약직 채용 제도 개선을”

### 전남도, 중앙정부에 건의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7일 무기계약직의 공정한 채용과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편법 운영사례가 끊이지 않아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현행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이원화돼 부처 공통의 통일된 지침

이 시급한 점도 고려됐다.

전남도는 건의안을 통해 매년 전국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현황을 밝히는 ‘무기계약직 현황 공표제 시행’을 요구했다.

또 기준인건비 산정 시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인건비 한도와 정수를 설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축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는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삭감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금액 전액 삭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의 무기계약직 운영 공동 법령과 지침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6주기 오늘 현충원서 추모식

### 광주YMCA선 추모문화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고 서울현충원측이 17일 밝혔다.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에는 유족과 정·관계 인사,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18일 85세로 서거했으며 같은 달 23일 국장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서울현충원은 “민주화와 민족 화해, 국가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한 고인의

송고한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추모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 행사는 광주에서도 열린다.

(사)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공민위원회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하고 김대중 서거6주기를 추모하는 한국근현대사 사진전과 김대중사진전 등의 추모문화제를 19일까지 광주YMCA무진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장소에 추모분향소를 설치, 18일 오전10시 정치인, 각계인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배도 거행된다.

## 내일 오후 2시 민방공 훈련

## 생물공격 행동요령 교육

국민안전처는 19일 오후 2시 전국에서 제399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훈련 당일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울리면 15분간 주민이 동과 차량운행이 통제된다.

주민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경계경보가 울릴 때까지 15분간 대기해야 한다.

관공서와 주요 산업체에서는 생물공격 방어훈련을 하고, 주요 대피장소에서는 생물공격 때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한다.

안전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에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 박대통령 “4대 개혁 연내 성과 내도록 총력”

## 을지 국무회의 주제 “‘넓은 규제도 과감히 버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되새겼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넓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

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환율 절하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국내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중국은 우리 경

제와 상호의존성이 매우 큰 만큼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롯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사업은 국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눈먼 돈’ 국가연구개발비 관리 깎깎해진다

### 학생 인건비 타용도 사용

### 5년간 연구개발 참여 제한

‘눈먼 돈’이란 지적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가운데 학생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특히 학생 인건비의 사용 용도에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다.

실제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나 책임 연구원 등이 학생의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령안은 또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노동조합원이 대우모로 퇴직해 노조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항만인력 공금 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30억원을 일괄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 스마일 라식

라식과 라섹을 뛰어넘는 안정성과 정확성이 높은 미래형 차세대 시력교정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뛰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마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백원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